



Global Goings-on

인생의 U 곡선 The U-bend of Life

- ▶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절이 굳어지고, 근육이 약해지고, 시력과 기억이 흐려지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경솔한 냉대를 받아야 하는 탐탁지 않은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어
 - 인생은 해 밝은 고지대에서 서서히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여정
- ▶ 인생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U 곡선
 - 사람들은 성인이 되는 것에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삶은 청년기의 절정기를 지나면 중년의 위기라고 알려진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계속 곤두박질치기 마련
 - 놀라운 것은 밑바닥을 친 인생은 노령에 이를수록 활력, 예리한 정신, 외모 등은 잃지만 사실상 자신들이 추구해 왔던 행복을 얻게 돼
- ▶ 인간의 웰빙(well-being)을 돈보다 더 만족스러운 잣대로 측정하려는 경제학 분과가 등장
 - 전통적 경제학은 효용을 돈으로 측정하지만 돈과 웰빙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

는 가정을 부인하는 경제학자들이 웰빙 혹은 행복 그 자체를 측정하려 해

- ▶ 부탄에서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총행복지수(Gross National Happiness)를 사용하고 있어
 - 모든 새로운 정책들은 시행되기 전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과 같이 GNH 평가를 받아야 해
 - 2008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Amartya Sen과 Joseph Stiglitz에게 GDP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만족도 지수를 개발하도록 지시
 - 2010년 11월 영국의 David Cameron도 영국정부가 영국 국민의 웰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해
- ▶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통계적으로 종합해 볼 때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어: 성, 성격, 외부 환경, 나이
 - 성: 여성이 남성보다는 약간 더 행복한 편; 그러나 남성은 10분의 1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반면 여성은 4분의 1 정도가 경험
 - 성격: 외향적인 사람이 신경질적인 사람보다는 더 행복해; 영국인들이 중국인, 일본

인보다는 더 외향적인 편

- 외부 환경: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, 교육수준이 높을수록, 소득이 많을수록, 건강할수록 행복

▶ 행복의 요인: 나이

- 30대와 70대에게 어느 세대가 더 행복한지 물어보면 두 세대 모두 30대를 지목
- 그러나 자신의 웰빙을 평가하는 설문에서는 70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나와
- 16, 17세기를 지배했던 인생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은 중년에 가까울수록 발달하고 만족감이 커지다가 그 이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점점 쇠약해지며 불행해진다는 것
- 중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웰빙이 상승한다는 U 곡선 개념은 생소한 것으로 Warwick Business School 경제학 교수인 앤드류 오스왈드 교수는 U 곡선은 생소한 개념으로 1990년대에 이를 주목한 학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세미나를 열어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밝혀

▶ U-곡선에 대한 관심 증가

-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행복감은 평균적으로 46세에서 바닥을 친 후 노년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져
- U-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코호트(cohort)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는 나라들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U-곡선은 발견 돼

▶ 행복한 사람들은 더 건강해

-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에 비해 상처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두 배 빨라
- 피츠버그 소재 카네기멜론대학의 셸든 코헨은 사람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투여한 후 행복한 유형의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으며 감기에 걸리더라도 그 증상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
-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지만 행복해 하는 삶의 태도가 신체의 쇠약함을 중화할 수 있어

▶ 행복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높아

- 오스왈드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영화를,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웃기지 않는 영화를 보여 준 후 업무를 할당한 결과 웃기는 영화를 본 그룹의 생산성이 12% 높은 결과를 얻어

▶ 부유한 세계의 노령화는 경제에 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U-곡선은 노령화를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

2010년 12월 16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7722567?Story_ID=17722567〉

미국

사회보장 민영화, 아니다. My Continuing Education

- ▶ 칼럼니스트는 생각하라고 돈을 받지만 때때로 그 생각이 잘못될 때도 많아
 - 2004년 재선 후 사회보장의 부분 민영화를 법제화하려 한 조지 부시를 지지해
 - 당시에는 어려운 판단이었으나 대침체 (Great Recession)를 겪고 난 지금은 명백히 어리석은 판단이었음이 드러나
 - 대침체는 투자(private investment)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게 된 계기가 돼, 즉 투자가 리스크(risk)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보장은 확실성에 관한 것
 - 은퇴연금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중요해
- ▶ 선택, 수동성에 대한 해결책
 -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국내 아젠다의 우선 순위로 천명
 - 부시는 사람들이 은퇴를 위한 저축을 시장에 맡기면 실제로 공공연금이 보장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
 - 이런 부시의 생각에 동조
- ▶ 저널리스트로서 도시 문제를 주로 다룬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지나치게 믿어, 특히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전통적 사회서비스의 실패를 목도한 경험
 - 당시 사회복지지는 빈곤을 확대하고, 빈곤여성에게 결혼에 대해 단념케 하고,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, 자녀교육에 무관심하게 하고, 자녀들은 책임감도 없이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가지게 하는 역보상 시스템처럼 보여
 -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않는 독특한 빈곤문화가 정착된 듯 보여
 - 이러한 문화의 핵심적 특징은 수동성 (passivity)으로 여겨져
- ▶ 수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이 선택의 자유
 - 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자녀의 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
 - 1980년대 초 동부 할렘가에서 부모들에게 다양한 교과과정을 가진 학교들 중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
 - 무기력한 듯 살아가는 부모들이 최초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
 - 선택이란 결국 시장의 핵심 메커니즘; 선택은 결국 최상의 학교, 직업훈련프로그램, 보건의료서비스, 연금서비스와 같은 최상의 공공상품이 부상하게 하고 평범한 시민도 보다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해
- ▶ 시장의 한계
 - 그러나 사회서비스 시장은 엄격히 규제되

어야 해

- 칠레의 혁명적 사회보장 민영화 계획도 정부가 승인한 연금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통제해
- 부시의 민영화 프로그램에는 이와 같은 통제 메커니즘이 없어
- 그러나 시장은 실패할 수 있고 연금도 날아가 버릴 수 있어

- ▶ 사회보장의 기능은 푸드 스탬프와 같이 최소한의 바닥을 제공하는 것
 -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
- ▶ 두 가지 형태의 사회보장
 - 하나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건져 내리는 프로그램
 -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
 - 사람들을 빈곤에서 건져 내리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단순하면서도 시장에 흔들려서는 안 돼

2010년 11월 24일 / TIME

〈원문 링크: http://www.time.com/time/specials/packages/article/0,28804,2032304_2032745_2032834,00.html〉

유럽연합

유럽연합 장관들

20주 유급출산휴가에 반대

EU Ministers reject 20-week maternity leave plan

- ▶ 유럽연합 장관들은 유럽연합 의회가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유급출산휴가를 20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완강히 거부해
 - 현재 유럽연합의 의무출산휴가기간은 14주
 - 유럽위원회(The European Commission)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립을 위해 이를 18주로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어
 - 적어도 내년까지는 변경이 어려워
- ▶ 영국은 20주 유급출산휴가안에 반대한 나라 중 하나
 - 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영국산업은 연간 25억 파운드(28억 유로)의 비용을 치러야 해
 - 독일과 프랑스도 유사한 입장 취해
 - 프랑스의 경우 13억 유로의 추가 보건비용을, 독일은 12억 유로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해
- ▶ 현재 유럽연합의 의장국인 벨기에는 대다수 국가들이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을 더 검토해 보기를 원한다고 밝혀 - 유급출산

휴가 최소 18주까지 연장

- ▶ 유럽의회가 낸 성명에 따르면 많은 유럽연합 장관들은 유럽위원회의 제안서에 남성의 유급출산휴가가 포함되는 것도 꺼려해 - 남성 유급출산휴가의 주된 목적은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
 - 유럽의회의 수정안에는 남성의 출산휴가를 최소 2주 보장하는 안이 포함돼
 - 수정안이 유럽의회에 다시 상정되려면 의회의 다수 찬성이 필요
- ▶ 유럽위원회의 원안에 따르면 18주간의 유급출산휴가 시, 급여를 100% 지급할 필요 없이

병가 수준으로만 지급하면 되도록 해

- ▶ 영국의 여성은 현재 12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6주간은 급여의 90%, 나머지 33주간은 출산휴가급여법에서 정한 1주당 125 파운드를 받을 수 있어
 - 독일에서는 전체 출산휴가 기간이 14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짧지만 초산한 엄마들의 경우 급여의 100%를 받을 수 있어

2010년 12월 7일 / BBC NEWS

〈원문 링크: <http://www.bbc.co.uk/news/world-europe-11936218>〉